


사람을 다시 보다, 세상을 연결하다, 내일을 준비하다

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	<h1>보도자료</h1>		누구나, 어디서나 <b>모두를 위한 박물관</b> MUSEUM FOR YOU
보도 일시	2022. 7. 18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2. 7. 18.(월) 14:00
담당 부서	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	책임자	학예연구관 황은순 (055-320-6830)
		담당자	학예연구사 이제현 (055-320-6832)

##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

- 7월 21일 목요일, “가야 선주민의 도구 -석기-” -

국립김해박물관(관장 이정근)은 2022년 가야학술제전의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‘가야 선주민의 도구 -석기-’를 7월 21일(목)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.

이번 심포지엄은 ‘가야선주민 연구’의 일환으로 가야 선주민이 사용했던 도구인 석기를 주제로 마련하였다. 철이라는 신소재가 등장하기 전까지 돌은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,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.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의 석기 연구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, 가야선주민들의 생업경제와 사회복합화의 문제를 석기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. 동시에 석기의 제작과 생산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상으로 조명한다.

발표는 총 4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다. ‘청동기시대 석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(손준호, 고려대학교)’를 시작으로 ‘석제 목공구로 본 청동기시대 생업경제(임숙, 국립광주박물관)’, ‘무덤 출토 석검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복합화의 진전(송아름,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)’, ‘가야문화권 청동기시대 석기의 제작과 생산(윤재빈, 울산문화재연구원)’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.

이번 심포지엄은 7월 21일(금) 오후 1시부터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며,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. 또한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(<https://www.youtube.com/c/GimhaeNationalMuseum>) 채널에서도 학술제전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.

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은 가야문화 복원에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,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.

이후에도 '환호의 성격과 의미(10월 28일)', '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Ⅱ - 토기문화(11월 25일)', '가야의 장신구 I - 유리(12월 9일)'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. 가야문화 연구와 복원의 초석이 될 가야학술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.



<붙임>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관련 포스터

붙임1. 홍보물

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

# 가야 선주민의 도구 - 석기 -

**2022. 7. 21.(목)**  
**13:00~17:50**  
국립김해박물관 강당

<p>청동기시대 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손준호(고려대학교)</p>	<p>석제 목공구로 본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임숙(국립김해박물관)</p>
<p>무덤 출토 석검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복합화의 진전 송아름(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)</p>	<p>가야문화권 청동기시대 석기의 제작과 생산 윤재빈(울산문화재연구원)</p>

종합토론  
좌 장 : 김권구(계명대학교)

YouTube  
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 생중계

국립김해박물관  
Gimhae National Museum